

다른 그림 찾기

다음 그림 중 서로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보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월 15일 시작되는 5주기 의료기관인증을 대비한 1차 리허설이 8월 11일부터 4일간 진행됐다. 이번 리허설에서는 질 향상 및 환자안전, 감염관리, 의약품관리 등 6개 부문의 시스템 추적조사, 규정-문서검토와 시설 투어 등이 진행됐다. 2차 리허설은 9월 1일부터 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8월 12일 조사위원인 박숙희 어린이병원간호팀장, 조광훈 시설팀장이 144병동을 방문해 개별환자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함께 만드는 뉴스 매거진

이름 : _____ 소속 : _____
전화번호 : _____



독자 여러분의 참여가 더욱 알찬 뉴스매거진의 밑바탕이 됩니다.

- 소개하고 싶은 직원
- 특별한 취미를 가진 직원
- 동료와의 협업 사례
- 소개하고 싶은 영화/뮤지컬/책
- 우리 부서 소식



가장 좋았던 코너는 무엇인가요? 뉴스매거진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지나호 정답



제777호 병원보에 실린 콘텐츠 중 독자들이 꼽은 가장 좋았던 코너는 '헬스에디터 - 자외선과 점, 그리고 피부암'이었습니다.

이번 독자엽서는 내과간호1팀 신미자 사원이 추천했습니다.
좋은 의견을 담아 독자엽서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3개월 이내에 홍보팀을 방문해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독자엽서 보내는 곳

제출 방법 동·서·신관 직원식당 내 배포함
마감 2026년 9월 1일(화)
발표 제781호(2026년 9월 15일 발간)

독자를 위한 선물



원내 식당 10만 원 이용권
유현영(진단검사의학팀)

피톤치드 룸&패브릭 스프레이
박경미(암병원간호1팀)
백승리(수술간호팀)

원내 식당 5만 원 이용권
전희진(종양내과)
조강호(정형외과)

달마이어 1만 원 이용권
박현경(소화기내시경팀)
양예원(영상의학팀)
여영덕(심장검사팀)
이승아(암병원간호2팀)
최서연(응급간호팀)



위로와 공감의 한마디, 따뜻한 환자 경험을 남기다

우리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 실시한 2025년 5차 환자경험평

가에서 7개 평가영역 평균 95.31점으로 1등급을 획득했다. 국내 빅5 병원 중에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23개 세부 문항 가운데 '환자 본인 확인'이 97.77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지난 2024년 평가와 비교해서는 '의사를 만나 이야기할 기회'가 13.40점, '치료 결정 과정 참여 기회'가 11.08점 상승했다. 의료진이 환자의 눈높이에 맞춰 질환과 치료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실제 환자들의 높은 평가로 이어진 것이다. 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진료 경험을 위해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 온 변화가 이번 성과를 이끌었다. 사진은 8월 6일 내분비외과 성태연 교수(앞줄 왼쪽)가 갑상선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질환의 상태와 향후 치료 방향을 설명하는 모습. (관련기사 2면)

03 NEWS 미국 뉴스위크 평가 '친환경 병원' 최고 등급

07 르포 몽골 의료협력팀 에르데네트 동행기

12 AMC IN(人)sight 소아청소년전문과 박준성 부교수

16 웰컴 투 AMC "고난도 코 성형 노하우 배울 수 있어서 기뻐요"



서울아산병원 뉴스로
병원 소식을 한눈에

환자경험평가 95.31점으로 1등급

우리 병원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차 환자경험평가에서 7개 평가영역 평균 95.31점으로 1등급을 획득했다. 전체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중 5위를 기록했으며, 국내 빅5 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환자경험평가는 환자 중심 의료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하는 국민 참여형 평가다. 이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47개소와 종합병원 329개소 등 총 376개 병원에 1일 이상 입원한 만 19세 이상 환자 13만 435명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투약 및 치료과정, 정서적 지지, 환자안전과 병원환경, 환자권리보장, 전반적 평가 등 7개 영역 23개 항목을 평가했다.

우리 병원은 ▲전반적 평가 97.41점 ▲환자안전과 병원환경 96.80점 ▲간호사 영역 96.78점 등 7개 영역 모두에서 빅5 병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세부 문항에서는 ▲환자 본인 확인이 97.77점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 4차 평가 당시 89.92점이었던 영역 평균은 이번 평가에서 95.31점으로 상승했다. 환자경험의 핵심인 '위로와 공감(정서적 지지)' 영역은 전 평가 대비 7.6점 상승하며 환자의 마음을 살피는 진심이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졌다. 특히 ▲의사를 만나 이야기할 기회 13.40점 ▲치료 결정 과정 참여 기회 11.08점 상승해 의료진과의 소통과 치료 참여 경험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병원은 ▲회진알림전송 시스템 ▲회진 질문지 ▲환자 중심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를 치료 과정에 적극 활용하고, 환자경험 상시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별 맞춤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병원환경개선소위원회 운영 ▲시설물 정기 점검 등을 통해 환자가 머무는 공간을 살피고 내원객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박승일 병원장은 "이번 결과는 어느 한 부서가 아닌 우리 병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다. 항상 그랬듯 환자를 향한 따뜻한 진심을 한결같이 이어나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6차 환자경험평가는 100병상 이상 병원 887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025년 5차 환자경험평가 결과				
기관명	영역 평균	평가 등급	빅5 병원 순위	상급종합병원 순위
서울아산병원	95.31점	1등급	1위	5위
서울성모병원	93.64점	1등급	2위	12위
삼성서울병원	91.75점	1등급	3위	21위
세브란스병원	88.19점	2등급	4위	37위
서울대학교병원	85.96점	2등급	5위	45위

※ 1등급 90점 이상, 2등급 85점 이상~90점 미만

엔비디아·라이브엑스 AI와 피지컬 AI 협력 논의



엔비디아라이브엑스 AI 방문단과 우리 병원 경영진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글로벌 AI 플랫폼 기업 엔비디아의 란 후 전략사업개발 디렉터,

고객경험 자동화 솔루션 기업 라이브엑스 AI의 제리 리·지아리 공동대표를 비롯한 방문단이 8월 7일 우리 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피지컬 AI를 활용한 환자경험 혁신 방안과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단은 병원 내 다양한 환자 접점에 피지컬 AI를 적용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환자 안내와 상담 등 고객경험 서비스를 지능형으로 자동화하고, 우리 병원의 의료 현장 경험과 기업들의 AI 기술 역량을 결합해 환자 중심의 미래 의료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

미국 뉴스위크 평가 ‘친환경 병원’ 최고 등급



우리 병원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Newsweek)'가 최근 발표한 '2026년 세계 친환경 병원(World's Greenest Hospitals 2026)'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나뭇잎 5개'를 받았다. 또한 세계 24개 병원에게만 주어지는 '지속가능 인프라 우수병원(Sustainable Infrastructure)'에도 함께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병원 운영 전반에서 추진해 온 ESG 활동의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뉴스위크는 올해 처음으로 전 세계 6,000여 개 병원을 대상으로 친환경 경영과 지속가능성 수준을 평가해 36개국 250개 병원을 우수 병원으로 선정했다. 지속가능성 성과 데이터와 전문가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순위는 매기지 않고 나뭇잎 3개부터 5개까지 등급을 부여했다. 올해 최고 등급을 받은 병원은 전 세계 34곳이며, 국내에서는 우리 병원을 비롯해 단 4곳만이 나뭇잎 5개를 받았다.

우리 병원은 2021년 국내 종합병원 최초로 ESG위원회를 발족

한 이후 친환경(E)·사회적 책임(S)·투명 경영(G)을 중심으로 병원 운영 전반에 ESG 경영을 확대해 왔다. 현재 13개 영역, 23개 주요 지표와 40개 세부 목표를 수립해 ESG 동향과 지표별 추진 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표 점검 주기를 연 2회로 확대해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우리 병원은 친환경 경영 부문에서 ▲저탄소 환자식 운영 ▲일회용 재료 및 액체류 분리수거 확대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강화 교육 ▲에너지 절감 캠페인 ▲설비 효율 개선 활동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0.134tCO₂/m² 이하, 전기 사용량을 0.208MWh/m² 이하, 용수 사용량을 2.53톤/m² 이하로 관리해 각 지표별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 의료폐기물 발생량도 일 평균 13.1톤으로 목표치인 16.5톤을 밑돌며 안정적인 감축 수준을 유지했다. 폐기물 분리배출 교육에는 작년 한 해에만 총 538명의 직원이 참여해 구성원의 친환경 실천 인식을 높였다.

한편 우리 병원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와 '건물 ESG'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전력 사용 측정기를 설치해 병원의 에너지 소비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내 첫 ICHOM 파트너십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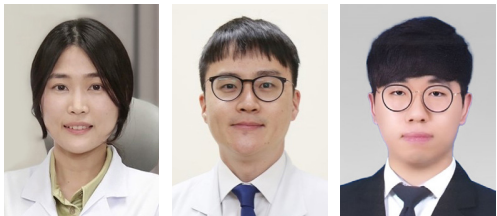
우리 병원이 국내 처음으로 ICHOM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우리 병원이 환자자기평가도구(PROMs)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글로벌 비영리기구 ICHOM(International Consortium for

Health Outcomes Measurement)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ICHOM은 환자에게 중요한 임상 결과와 삶의 질 지표를 정의하고 표준화한 '질환별 환자 중심 성과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현재 49개 표준 세트가 개발됐으며 60개 이상 국가, 500개 이상의 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다. ICHOM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내 기관은 우리 병원이 처음이다.

우리 병원은 이번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ICHOM의 표준 프로토콜,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하며 PROMs의 임상 적용과 운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ICHOM 글로벌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가치기반의료 추진 방향을 정립하고 실행 전략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AI 정량 CT 분석으로 특발성 폐섬유증 예후 예측



최주애 조교수 김호철 부교수 김동영 레지던트

특발성 폐섬유증은 폐가 딱딱하게 굳어가며 호흡 기능이 저하되는 원인 불명의 만성 진행성 폐질환이다. 한 번 손상된 폐 기능은 회복되기 어렵고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주요 암보다 낮을 정도로 예후가 좋지 않다. 지금까지는 폐기능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로 질병의 진행 정도를 평가했다. 하지만 폐기능검사는 폐의 섬유화가 어느 부위에 얼마나 진행됐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CT 영상은 의료진에 따라 판독상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영상의학과 최주애 조교수, 김동영 레지던트, 호흡기내과 김호

철 부교수팀은 CT 영상에서 폐 섬유화 부위를 AI 기반 소프트웨어로 수치화해 질병 진행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기준값을 마련했다. 흉부 CT 영상에서 나타나는 망상(그물 모양) 음영과 벌집 모양 음영을 인공지능 기반 자동 정량 분석을 통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측정할 수 있어 시간에 따른 섬유화 범위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연구팀이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 748명의 검사 기록을 분석해 첫 검사와 1년 뒤 추적 검사 시점의 폐 섬유화 점수를 산출한 결과, 1년 동안 점수가 4.05% 이상 증가한 환자는 폐 이식을 받아야 하거나 사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 폐 기능검사 수치 등을 바탕으로 예후를 예측하는 기존 모델에 섬유화 점수 변화를 추가하자 예후 예측력이 향상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호흡기·중환자의학저널」에 게재됐다.

외래에서 하루 만에 췌장 조직검사… 1,000례 달성



송태준 담도췌장암센터소장(오른쪽)이 췌장암 의심 환자에게 조직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췌장암은 우리나라 암 발생률 8위를 차지할 만큼 흔하지만 5년 생존율은 17%에 불과하다. 별다른 증상이 없어 대부분 수술이 어려운 상태에서 늦게 발견되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신속한 치료가 중요하다.

우리 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와 담도췌장암센터는 국내 췌장암 환자의 20% 이상을 치료하며 축적한 풍부한 임상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4년 3월 외래 당일 췌장 조직검사 시스

템을 국내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후 약 2년 3개월 만에 1,000례를 달성했으며, 조직검사 진단 정확도는 95%, 합병증 발생률은 1% 미만을 기록했다. 기존에는 췌장 조직검사를 받기 위해 평균 2박 3일간 입원해야 했다. 이때 입원 일정 조율과 병상 배정 대기 등으로 검사까지 수주가 걸리고 진단과 치료도 차례로 늦어져 환자들의 불안과 부담이 컸다. 입원이 필요했던 조직검사를 당일에 마칠 수 있게 되면서 환자의 편의와 만족도가 높아지고, 암 확진까지 걸리는 시간도 크게 단축됐다. 또한 주요 혈관 침범 여부와 전이 여부 등 환자의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위장관외과,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관련 의료진과 함께 환자 맞춤형 치료 계획을 신속하게 제시하며 췌장암 진단과 치료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변정식 소화기내시경센터소장은 “췌장 조직검사를 하루 만에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은 풍부한 내시경 기술 노하우와 고도화된 스케줄링 시스템이 결합된 결과다. 앞으로도 환자들이 안심하고 검사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심장판막시술 국제학술회의



제15회 서울심장판막시술 국제학술회의에서 패널들이 심장내과 박덕우 교수팀의 경피적 대동맥판막 치환술을 실시간으로 보며 토론하고 있다.

제15회 서울심장판막시술 국제학술회의가 8월 6일부터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심장혈관연구재단이 주최하고 우

리 병원 심장병원이 후원하는 이번 학술회의에는 세계 각국의 심장학 전문가들이 참석해 심장판막질환과 구조심장질환 치료의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행사에서는 경피적 대동맥판막 치환술을 비롯해 이엽성 대동맥판막, 판막 내 시술, 순수 대동맥판 역류, 삼첨판 및 승모판 중재술 등 고난도 치료를 주제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됐다. 케이스 발표 세션에서는 전 세계 각국의 우수 임상 증례를 공유하고 심장 전문의들이 다양한 치료 전략과 학술적 견해를 나눴다. 라이브 케이스 세션에서는 우리 병원을 비롯해 중국, 싱가포르, 대만의 병원이 고난도 심장판막시술을 실시간으로 중계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울산의대 교원 정년식



울산의대 교원 정년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학년도 1학기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원 정년식이 8월 3일

교육연구관 1층에서 열렸다. 이날 정년식에서는 소아청소년전문과 김경모 교수, 신경외과 김정훈 교수, 병리과 김종재 교수, 방사선종양학과 김중훈 교수, 내분비내과 박중열 교수, 대장항문외과 유창식 교수, 위장관외과 육정환 교수, 영상의학과 이진성 교수, 호흡기내과 임채만 교수, 재활의학과 전민호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고 그동안의 헌신과 공로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행사는 임영석 의과대학장의 인사말과 공로패 전달에 이어 채희동 의무부총장과 박승일 병원장의 축사, 정년 교수들의 퇴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달의 후원자

		(단위: 원)	
개인 및 단체 병원발전(중입자치료기 등)	현대헬스개발(주)	100,000,000	정현주 500,000
	HD한국조선해양(주)	5,000,000	(주)남유에프엔씨 50,000,000
	박영이 100,000,000	불우환자 지원	(주)행복한씨엠오 5,000,000
	박희우 1,000,000	김양희 1,000,000	
	서동준 100,000,000	김제나 1,000,000	
	신동한 5,000,000	김현숙 300,000	
	안해든 1,000,000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10,000,000	
	이화소재(주) 100,000,000	박선아 5,000,000	
	(주)남유에프엔씨 50,000,000	박진원 10,000,000	
	주식회사 코코 100,000,000	이정일 1,000,000	
	정재영 1,000,000		
		직원 및 직원가족	
		불우환자 지원	
		송성일 1,200,000	
- 2026년 7월 31일 기준, 가나다순			
※ 문의: 대외협력팀 후원 유닛 (02-3010-6207)			

동 정

고범석 교수 전국외과대학교수협의회 차기 회장



유방외과 고범석 교수가 8월 1일 열린 전국외과대학교수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전국외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전국 40개 외과대학 교수들이 참여하는 대표기구로 의료 정책 의견 개진,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 등에 힘쓰고 있으며, 고 교수는 현재 교육수련위원장을 맡고 있다. 차기 회장 임기는 2027년 3월부터 2029년 2월까지 2년이다.

남궁정만 교수, 김준기 부교수 국책과제 수주



소아외과 남궁정만 교수, 융합의학과 김준기 부교수가 최근 보건복지부 글로벌연구협력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연구팀은 ‘간 섬유화 및 간암의 정밀 진단을 위한 차세대 광섬유 시스템과 첨단 내시경 진단 기술 개발’을 주제로 2028년 12월까지 연구를 진행한다. 초기 간 질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조기 진단이 가능한 바이오헬스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영국 사우샘프턴대학교 광전자연구센터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양지명 부교수 아너 어워드



안과 양지명 부교수가 최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미국망막학회 제44회 연례학술대회에서 아너 어워드(Honor Award)를 받았다. 이 상은 원저 논문 발표, 패널 토의, 연수과정 등 학회 학술 프로그램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된다. 양 부교수는 망막질환의 최신 수술법, 전신혈관질환과 망막 바이오마커, 안구 내 종양의 진단과 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학술 활동에 활발히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혜현 조교수 로레알-유네스코 펠로십상



중앙내과 정혜현 조교수가 7월 23일 열린 제25회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 시상식에서 펠로십상을 받았다. 이 상은 생명과학 또는 공학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거둔 만 45세 미만 신진 여성과학자에게 수여된다. 정 조교수는 체담도암 유전자 분석을 기반으로 한 환자 맞춤형 항암치료 연구와 항암제 복용 방식 개선을 위한 임상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뇌동맥류 치료기기 ‘아티스’ 국내 첫 시술



신경외과 박중철 부교수가 7월 20일 뇌동맥류 환자에게 새 치료기기인 아티스 시술을 국내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리 병원 뇌혈관팀(신경외과 권병덕·안재성 교수, 박중철 부교수, 최준호 조교수, 영상의학과 이덕희 교수, 송윤선·권보성 부교수)이 새로운 뇌동맥류 삽입형 치료기기인 ‘아티스(Artisse™)’를 국내 처음으로 도입했다. 신경외과 박중철 부교수는 7월 20일

아티스를 이용해 뇌동맥류 환자 5명에게 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아티스는 뇌동맥류 주머니 안에 금속망 형태의 기기를 펼쳐 동맥류 내부에 혈전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유도해 시간이 지나면서 동맥류가 막히는 원리다. 직경과 높이에 따라 총 20개 규격으로 구성돼 동맥류의 폭과 높이, 위치 등 환자의 해부학적 특성에 맞는 기기를 선택해 치료할 수 있다. 특히 동맥류 입구가 넓거나 혈관이 여러 갈래로 나뉘는 등 치료가 까다로운 경우에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환자에서는 항혈소판제를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 병원 뇌혈관팀은 1989년 첫 뇌동맥류 수술을 시작으로 최근 국내 최초 뇌동맥류 치료 2만례를 달성하는 등 국내에서 가장 많은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뇌동맥류를 치료해 왔다.

몽골에서의 일주일 봉사를 넘어 협력으로

몽골 취재·사진 이다예 대리 | 글 류현철 주임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북서쪽으로 430km 떨어진 광산 도시 에르데네트. 우리 병원 직원들로 구성된 의료협력팀이 8월 3일부터 나흘간 이곳에서 현지 주민 750여 명을 진료하고 돌아왔다. 의료진은 모든 활동을 ‘봉사’가 아니라 ‘협력’이라 불렀다. 한 번의 도움으로 그치지 않고 몽골 현지의 의료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다짐이었다.

“서울아산병원이 온다”

몽골 북부 권역은 전국에서 암 발생률이 가장 높고 암 사망률은 두 번째로 높다. 이 지역 암 환자 10명 중 7명은 말기가 되어서야 병원을 찾는다. 낮은 치료 접근성 때문이다. 북부 권역은 에르데네트에 위치한 오르혼 아이막(몽골의 광역행정구역)을 비롯해 불강·후브스굴·셀렝게·다르항 아이막까지 무려 약 19만 4,000km², 남한 면적의 2배 규모다. 52만여 명의 북부 주민은 암 치료를 받으려면 울란바타르까지 멀게는 700km를 오가야 한다.

그래서 몽골국립암센터 분원인 북부권역암센터가 지난해 9월 문을 열었다. 7층 건물에 18개 진료실, 88개 병상을 갖췄다. 조기 검진부터 수술, 항암,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개원 후 6개월 동안 55건의 암 수술을 했다. 새로 발견된 암 29건 중 19건이 조기암일 정도로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았다. 구리 광산으로 유명한 에르데네트는 광산 노동자 비율이 높고 호흡기 환자도 많다. 그러나 이 병원에는 현재 호흡기 전문의가 없다. 높은 암 발병률에도 암 치료 노하우가 부족하다. 숙련된 의료진의 치료 경험이 필요한 때, 몽골 보건부가 우리 병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몽골의 외과의사들은 수술을 잘한다. 하지만 암 진단부터 수술 전후 관리 등 전체 치료 과정에 대한 숙련도나 질적 수준은 낮은 편이다. 의료진 모두 선진 의료를 배우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서울아산병원은 한국 의료를 선도하는 병원이다. 우리 의료진에게도 큰 배움의 계기가 되리라 생각했다.**”

- 자브할란 북부권역암센터장



사실 몽골에서 ‘서울아산병원’은 낯선 이름이 아니다. 오랜 기간 몽골에 간이식 노하우를 전수해 왔고, 현 몽골 총리가 몇 해 전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는 이야기도 알려져 있다. 그래서인지 우리 의료협력팀이 진료를 시작하던 날 열린 환영식에서는 몽골 국회의원, 오르혼 도지사 등과 수많은 주민들이 의료진을 맞이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나흘간 만난 750명

8월 3일 오전 10시 30분, 내과·호흡기내과, 유방외과, 영상의학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진료가 시작됐다. 우리 병원 의료진, 현지 의료진, 그리고 통역 자원봉사자가 하나 되어 치료의 힌트를 놓치지 않으려 환자의 말과 표정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오랜 기간 기침과 가래를 참아온 환자,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어느 날부터 가슴에 만져지는 멍을 때문에 불안한 환자… 대기 줄은 복도로 길게 이어졌다. 진료과마다 하루에 15~20명 진료를 보던 병원에 첫날에만 400명 넘게 몰렸다. 당초 계획한 사흘로는 진료를 마칠 수 없었다. 의료진은 예정에 없던 4일차 오전 진료를 추가로 진행했다. 그렇게 다녔던 환자가 총 750명이었다.

각종 초음파 검사도 진행됐다. 영상의학과 신지훈 교수는 북부·갑상선 초음파를 80여 건 진행했다. 간낭종, 지방간, 간염 등 간 질환 환자가 많았다. 몽골 지역에 간암 환자가 많다는 통계와 맞아떨어졌다. 유방외과 정일용 교수는 유방 초음파 150건과 유방 조직검사 6건을 시행했다. 병원에 상주하고 있는 유방외과 전문의가 없기에, 두 달에 한 번 울란바타르에서 방문하는 유방외과 의사 1명으로는 진행이 불가능한 검사들이었다.

다음 장에 계속



호흡기내과 이세원 교수(가운데)가 몽골 호흡기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무크 차트랄 씨(47세, 여)는 2년 전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다. 림프절에도 전이된 상태였다. 몽골 국립암센터에서 유방암 수술을 했고, 항암과 방사선 치료도 받았다. 매년 추적 검사를 받으려면 울란바타르까지 오가야 하는 상황. 올해는 에르데네트를 찾아온 의료협력팀 덕분에 한결 수월하게 검사를 받았다. 수술 후 팔이 잘 올라가지 않던 환자는 정일용 교수를 만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배우고 돌아갔다.

“울란바타르까지 가는 데만 8시간인데, 오늘은 20분 만에 와서 편하게 검사를 받았다. 수술이 아주 잘 됐고 이상이 없다니 다행이다. 새로 배운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겠다.”

- 무크 차트랄 씨

광산에서 일하는 몽흐바야르 씨(32세, 남)는 건강검진 때마다 폐 영상에서 점들이 보인다고 정밀검사를 권유받았다. 현지 의사는 양쪽 폐 모두 수술로 절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었다. 호흡기내과 이세원 교수는 다른 답을 말했다. 환자의 연령과 면역력 등을 고려했을 때 주기적인 객담 검사 등으로 경과를 관찰해도 괜찮다는 것이다. 환자는 수술 없이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 고맙다고 말했다.

“천식과 만성기침 등 호흡기 환자가 예상보다 훨씬 많았다. 정확한 진단이 되지 않아 금방 치료할 수 있는 수준인데도 악화되는 느낌이었다. 현재 호흡기 전문의가 없어 환자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최적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 호흡기내과 이세원 교수(몽골 의료협력팀장)

끝없는 배움의 장

나흘간의 빠듯한 진료 일정에도 두 나라 의료진은 치료 노하우와 최신지견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몽골 의료진은 현지 환자의 암종별 분포와 특성을 소개했다. 이어 우리 의료진이 유방

암 진단과 수술, 카테터 에탄올 경화술을 통한 자궁내막종 치료,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폐암 치료, 중환자실 암 환자의 폐색전증 치료, 암 환자 간호 노하우 등을 강의했다. 이들에 걸쳐 온 라인으로 진행된 콘퍼런스에는 이 병원뿐 아니라 지역 인근 병원과 울란바타르 국립암센터까지 참여했다.

“현지 의료진이 간호를 주제로 한 강의를 먼저 요청해 왔다. 간호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몽골 간호사들이 많을 정도로 우리나라 의료에 관심이 많다. 우리 병원의 간호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현지 의료에 기여할 수 있어서 기뻐다.”

- 간호교육행정팀 김지혜 차장

수술실에서도 치료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다. 정일용 교수는 현지 흉부외과 전문의가 집도하는 유방암 수술을 참관했다. 6차에 걸친 항암치료 끝에 병기가 3기에서 1기 수준으로 낮아진 환자였다. 정 교수는 전날부터 이 환자의 수술 방법과 향후 치료에 대해 의료진과 토의를 진행했다. 유방 수술이 극히 드문 이곳 의료진에게는 함께 환자 케이스를 논의하는 경험이 아주 소중하다.

“수술을 앞둔 환자의 초음파와 조직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함께 치료 계획을 상의할 수 있어서 유익했다. 환자를 위해 무엇이 더 좋은 선택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 두경부·재건외과 간에르데네 의사



유방외과 정일용 교수(왼쪽)가 북부권역암센터 두경부·갑상선외과 아나르치 맥 의사와 함께 CT 결과를 바탕으로 유방암 치료 계획을 상의하고 있다.

해외 의료협력을 처음 경험한 우리 의료진에게도 이곳은 더없는 배움의 현장이다.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사흘 반나절을 초음파 기계와 함께했고, 중환자실 간호사가 외래 진료실에서 만성질환 환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전공의는 수많은 환자 케이스를 접하며 병원에서는 해보지 못한 다른 차원의 수련을 받았다.

“병동과 수술실에서 주로 수련을 진행하다 보니 환자를 폭넓게 볼 기회가 많지 않았다. 교수님들이 어떻게 환자를 진찰하고 검사를 진행하는지, 환자마다 어떤 치료 전략을 구상하는지 가까이에서 배울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

- 외과 이의주 레지던트

지금껏 해오던 업무가 큰 도움이 되기도 했다. 약국을 담당한 간호사는 만성 간질환으로 약 처방을 받으러 온 환자에게 소화기내과 병동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건넸다. 재활의학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무릎 통증으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의 다리를 만져보다 심각한 림프부종이 의심돼 성형외과 진료를 의뢰하기도 했다.

“단순한 관절염이라기엔 한쪽 다리만 유독 부어 있는 것이 예상롭지 않아 보였다. 재활의학과 환자들을 간호하면서 림프부종 케이스를 많이 접했는데, 이 환자는 진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했다. 환자가 모르고 지나가지 않게 진료로 연계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환자에게 필요한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 내과간호2팀 양이레 사원

협력은 계속된다

의료협력팀은 매일 밤 한자리에 모였다. 낮에 만난 환자 케이스를 공유하고 소화를 나눴다. 의료진은 이번 진료가 다른 의료봉사와는 달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환자를 진료하고 필요한 약과 처치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이었다.

“환자들이 검사결과지를 잔뜩 들고 진료를 보러 왔다. 현지에서 아무리 검사를 많이 해도 정확하게 해석하고 필요한 치료를 시행하는 과정이 부족한 것 같다. 현지 의료진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늘려야겠다고 생각했다.”

- 유방외과 정문용 부교수

의료협력팀은 나흘간의 진료 일정을 모두 마친 뒤 울란바타르로 향했다. 귀국을 앞두고 마지막 일정으로 우리 병원과 의료협력을 희망하는 병원 두 곳을 찾았다. 현지 의료진은 중증·고난도 치료술기와 의료장비 유지보수 노하우 전수를 희망했다. 한 번의 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느끼는 만남이었다. 이번 활동을 마무리하는 순간, 다음 내딛을 의료협력의 걸음이 시작되고 있었다.

“우리 병원이 빠르게 성장한 것은 해외 우수 병원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애쓴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몽골의 경우도



영상의학과 신지훈 교수(가운데)가 몽골 환자에게 복부초음파를 시행하고 있다.

마찬가지다. 우리 병원에서의 해외의학자 연수, 지속적인 의료협력팀 파견 등이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봉사가 아니라 협력이라 부른 것처럼 몽골 현지의 의료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호흡기내과 홍상범 교수

2009년부터 해외 의료봉사·기술전수 이어와

우리 병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아산재단의 설립 이념 아래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 주민들을 치료해 왔다. 2009년부터는 봉사 지역을 국내에서 해외로 확장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네팔 등 16개국을 찾았으며, 이번 몽골 방문까지 총 59회의 의료봉사를 시행했다. 현지에서 수술할 수 없는 중증 환자를 우리 병원으로 초청해 무료로 치료하는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의료 저개발 국가에 고난도 의료기술을 전수하는 ‘아산 인 아시아(Asan in Asia)’ 프로젝트도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우리 병원 의료진 450여 명이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을 방문해 생체간이식, 암 수술, 치료내시경 기술 등을 전수했다.

특히 몽골은 우리 병원과 협력 관계가 더욱 깊다. 간암 사망률 전 세계 1위임에도 간이식을 할 수 없어 자국 환자를 해외로 보내야 했던 몽골을 위해, 2010년 우리 병원 간이식팀이 생체간이식 전수에 나섰다. 2011년에는 간이식·간담도외과 이승규 석좌교수팀이 몽골 최초의 생체간이식을 집도해 성공했다. 16년 동안 현지 의료진 225명을 초청해 연수를 진행했고 우리 병원 의료진 210여 명이 현지에서 간이식 노하우를 전수했다. 지난해에는 현지 병원이 누적 생체간이식 300례를 넘어서며 완전한 간이식 자립을 이뤘다.

HIMSS DIAM 인증을 준비하며



김정곤
진료지원실 지원부장

올해 우리 병원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바로 미국 보건의료정보관리시스템학회(HIMSS)의 DIAM(Digital Imaging Adoption Model) 인증 준비다. 이름이 다소 낯설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비슷한 개념에 익숙하다. 전자 의무기록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EMRAM이 국내외 많은 병원에 자리 잡은 지 오래인데, DIAM은 EMRAM의 의료영상 버전이라 할 수 있다. HIMSS가 유럽영상의학회(ESR), 미국영상정보학회(SIIM) 등과 함께 개발한 이 모델은 병원이 디지털 의료영상을 얼마나 성숙하게 운영하는지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으로 보여준다.

DIAM은 Stage 0부터 Stage 7까지 여덟 단계로 병원의 수준을 구분한다. Stage 0이 영상 정보시스템 도입이 미흡한 수준을 나타내는 출발점이라면, Stage 7은 국제 표준을 충족하면서 환자 안전과 업무 효율을 최고 수준으로 구현한 단계다. 각 단계는 요구사항의 70% 이상을 충족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Stage 0부터 4까지는 아래 단계의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올라갈 수 있으며, Stage 5 이상부터는 고도화된 영상 IT 기능 가운데 병원이 선택적으로 갖춘 항목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평가된다.

DIAM 인증 준비가 영상학과만의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범위는 훨씬 넓다. 2019년 개정을 거치며 평가 범위는 병원 전체의 의료영상을 통합 관리하는 '엔터프라이즈 이미징(Enterprise Imaging)'으로 확대됐다. CT, MRI, 초음파뿐만 아니라 심장초음파와 심혈관조영, 내시경 영상, 병리 디지털슬라이드, 안과 검사영상, 상처 사진, 수

술 및 시술 장면, 핵의학 영상, 치과 영상 등 진료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이미지가 평가 대상이다. 핵심은 여러 진료과에 흩어져 있는 방대한 영상을 어떻게 표준화된 방식으로 저장하고 연계해 안전하게 공유할 것인가에 있다.

평가도 장비 성능이나 영상 저장·전송시스템(PACS)의 용량 확인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영상의 저장과 조회, 공유 체계가 얼마나 잘 통합돼 있는지, 검사 처방부터 판독까지의 업무 흐름이 매끄러운지, 정보보안과 접근 권한 관리가 견고한지 등을 살핀다. 의료진의 판단을 지원하는 임상 의사결정지원 기능, 의료영상 국제 표준인 DICOM과 의료정보 연계 표준인 IHE에 기반한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도 함께 평가한다. 환자가 자신의 영상과 결과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는지, 축적된 영상 데이터를 분석에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까지도 폭넓게 다룬다.

그렇다면 이 인증 준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단순히 인증서 한 장, 좋은 타이틀 하나를 얻기 위함이 아니다. 평가 과정에서 받게 될 '갭 리포트'는 우리 병원의 현재 수준과 부족한 지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구체화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국내외 의료기관과 비교해 우리 병원의 위치를 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결국 DIAM 인증 준비는 특정 부서만의 과제가 아니라 영상을 만들고 활용하는 모든 진료과와 디지털정보혁신 본부가 협업해야 할 여정이다. 우리 병원은 올해 예비평가를 거쳐 Stage 7 인증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위해 부서별 현황 자료 제공과 점검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모든 부서가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모아 우리 병원의 의료영상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가기를 기대한다.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중환자실 실시간 예측 AI의 현주소와 과제



허진원 중환자실부실장

중환자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악화 중인 환자를 빨리 식별하고 초기에 치료해 생존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복잡한 의사결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중환자 치료에서는 AI를 활용한 조기 위험 예측 연구와 임상 적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중환자 치료 현장에서 활용되는 AI로는 뷰노의 '뷰노메드 딥카스(VUNO Med-DeepCARS)'와 에이아이트릭스의 '에이아이트릭스 바이탈케어(AITRICS-VC)'가 대표적입니다. 뷰노메드 딥카스는 병동 환자의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4가지 활력징후를 시계열로 분석해 24시간 내 심정지 위험을 예측하고 알람을 제공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에이아이트릭스 바이탈케어는 활력징후, 혈액검사 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사망, 심정지, 패혈증 등의 위험을 수 시간 전에 미리 예측하는 딥러닝 기반 시스템입니다. 두 기기 모두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를 통해 임상에 도입돼 여러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가 중환자 진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AI가 기존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인지 '보완'하는 것인지부터 정의해야 합니다. 현재 수준의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조기 예측이 실제 진료 현장에서 즉각적인 예방과 치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8년 국내 최초로 의료비상팀(MET) 가동을 시작한 우리 병원은 자체 구축한 EMR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조기 예측 프로그램들이 현재의 임상 워크플로우보다 월등히 나은 성능을 보여 주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환자실은 환자 상태가 급변하고 초마다 방대한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는 환경이기에, 환자의 악화 징후를 예측해 알려주는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에티오메트리(Etiometry)'는 다중 생체신호와 인공호흡기 데이터, EMR, 각종 검사 결과, 생리학

적 위험 지수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악화 징후를 조기에 파악합니다. 또한 병원별 진료 지침을 플랫폼에 내장해 의료진이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따라 대응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그 결과 중환자실 자원 기간과 재입실률 모두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메이요 클리닉의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된 '어웨어(AWARE - Ambient Clinical Analytics)' 역시 복잡한 중환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해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지원하고 원격 및 가상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CDSS가 주는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AI의 역할은 의료진의 '대체'가 아니라 의료 역량의 '증폭'이라는 것입니다. AI는 복잡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위험을 먼저 감지할 수 있지만, 치료에 대한 최종 판단과 환자-보호자와의 소통 등은 여전히 의료진의 몫입니다. 둘째, 아무리 정교한 알고리즘도 실제 임상 워크플로우에 통합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며 셋째, 신뢰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서는 임상 현장의 고품질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성형 AI와 에이전트 AI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많습니다. 알고리즘이 학습한 데이터와 실제 병원 환경 간의 격차(데이터 드리프트), 이에 따른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외부 개발 시스템이 우리 병원처럼 중증도가 높은 환경에서도 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반대로 우리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한 타 병원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규제기관의 현행 인허가 체계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목적, 임상 현장에서의 실질적 활용으로 귀결됩니다. '의료진의 판단과 대처를 효과적으로 앞당기기 위해서는 어떤 AI를, 어느 임상 워크플로우에,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이 부모가 응급이라 느끼면 응급 환자로 받아들이고 진단을 시작합니다”

소아청소년전문과 박준성 부교수

위험한 상태의 아이들에게 소아전문응급센터는 병원의 첫 관문과 같다. 24시간 아무 조건 없이 환아들을 수용하기 위해 박준성 부교수는 3교대 근무를 이어간다. “급성기 환아를 치료하면서 느끼는 보람이 큼니다. 빨리 악화된 만큼 적절한 초기 처치가 이뤄지면 빠르게 회복하니까요.” 아이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겠다는 그의 오랜 꿈은 응급센터 현장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완주 의지로 이어지고 있다.

찰나의 징후 속 진단

소아전문응급센터 환아의 절반은 열감과 구토, 감기 증상으로 찾아온다. 독감이나 수족구 같은 감염성 질환이 유행하는 계절이면 센터는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룬다. 나머지는 외상이나 타 병원에서 해결하지 못한 기저 질환의 급성기 환아들이다. 사소한 증상에 놀라 달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심각한 상황임을 알지 못해 병을 키워서 오기도 한다. 그래서 박준성 부교수는 아이들의 표현되지 않은 비특이적 증상 뒤에 숨은 질환을 예리하게 감별해 내고자 신경을 곤두세운다. “무릎 통증으로 왔다가 백혈병을 진단받거나, 소변 장애가 척수염으로, 어색한 표정이 뇌종양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있습니

다. 응급 환자인지를 의학적인 상태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보호자가 응급인지 몰라 불안해하는 마음까지 응급으로 받아들이고, 정확히 진단해 내는 것 역시 응급의료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어릴 적 소아 천식으로 병원을 드나들며 소아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를 꿈꾸게 됐다. 그래서 수련 병원을 선택할 때부터 소아청소년과의 역량과 규모를 중요한 기준으로 여겼다. 초기 평가와 처치가 예후를 좌우하는 소아 응급 분야로 들어선 이후 혼자서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다가도 위낙 희귀한 케이스가 많은 우리 병원의 특성상 급세 무너지고 벽에 부딪혔다. 코로나19 시기에는 레벨D 방호복을 입고 온몸

이 땀 범벅인 채로 폐렴 환아 한 명을 8시간 동안 돌보기도 했다. 진단의 정확성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복기하던 밤이 성실히 쌓이면서 모르는 증상의 환아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경험적 근거에 의해 나만의 진료 지침이 생기는 느낌이었어요. 그제야 자신 있게 진료를 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절박함을 품는 명료함

몇 년 전, 당장 수술이 필요한 환아가 센터에 도착했다. 이미 몇 번이나 수술을 집도한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소아 응급 환자 수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미리 연락 없이 도착한 응급 환자를 어떻게든 최종 치료로 연결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 외래 앞에서 교수님의 진료가 끝나길 기다렸다가 부탁드리기도 해요. 곤란한 상황에서도 배후진료과에서 저희 사정을 이해하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희망을 갖게 되죠.” 업무 초기에는 몰아치는 응급 상황 속에서 보호자들과 마찰을 겪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면서 그의 시선도 달라져 있었다.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물러설 데가 없다는 절박함을 비로소 이해하게 됐어요. 아빠가 되면서 진정한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완성되는 것 같아요.”

이후 그는 이해하기 쉬운 설명으로 상황을 명료하게 정리하며 환아와 보호자를 먼저 안심시킨다. “부모님께서서는 처음 겪는 상황이지만 응급실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 마주하는 케이스”임을 알리고 환아의 현재 응급도 순위를 설명하며 불필요한 공포를 덜어낸다. 또한 의례적인 검사나 침습적 처치는 되도록 최소화하고, 애매한 경우에는 경험에 기반한 빠른 의사결정으로 보호자와 내부 의료진을 설득하며 입원과 귀가, 전원 등을 신속히 수행하는 것을 중요한 치료 원칙으로 삼고 있다.



1. 소아의 표현하지 못하는 증상까지 진단하기 위해 청진에 집중한다.
2. 잦은 당직에 체력 안배를 위해 연구실 책상 위에 침대를 마련했다.

소아전문응급센터에서의 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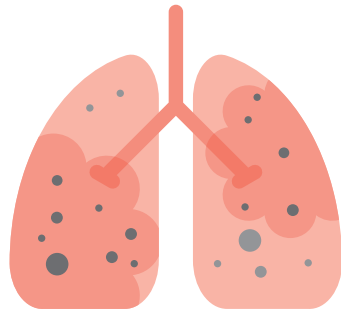
최근 소아전문응급센터는 근거 중심의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소아 심폐소생술과 기도 관리, 쇼크 치료 등을 직접 시행하고 있다. 이제는 타 분과의 긴급 요청을 역으로 지원할 만큼 역량을 강화했다. “우리 센터의 강점은 수준 높은 전문가들로 이뤄져 손발이 잘 맞는 점, 많은 환아에게 용이한 접근성, 그리고 어린이병원을 포함한 배후진료과의 전폭적인 지원 시스템이 삼박자를 이룬다는 점이에요. 전국의 많은 센터에서 세 가지 요인 중 하나는 좋을 수 있겠지만, 모두 갖춘 센터는 결코 흔하지 않죠.” 주말이나 야간에는 진료를 하지 않는 소아응급실이 많은 현실에 그는 아쉬움을 느낄 때가 많다. 그래서 지속가능성을 늘 고민하며 소아응급센터에서의 완주를 목표로 삼고 있다. “꾸준히 3교대 업무를 이어가려면 체력 관리부터 철저히 해야겠죠. 진료뿐 아니라 교육, 연구, 행정 영역 등에서 저만의 쓰임을 생애주기에 맞춰 찾아가며 응급센터 현장을 끝까지 지키고 싶고요. 그래서 후배 의료진이 안심하고 따라올 수 있는 선례를 남겨야죠.”

실내 공기의 진실

폐암은 흡연자만의 질환이 아니다



호흡기내과 김민지 임상전임강사



폐암은 국내 암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질환이다. 많은 사람들이 폐암을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진료실에서는 한 번도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 폐암 환자도 적지 않게 만난다. 특히 최근 비흡연 여성의 폐선암 발병이 증가함에 따라 흡연 외의 다양한 환경적 위험 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실내 환경은 폐 건강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폐암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정리했다.

실내 공기가 실외 공기보다 깨끗할까?

실내 공기가 항상 깨끗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실내에는 초미세먼지(PM2.5), 질소산화물(NO₂),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라돈, 담배연기 등 다양한 오염물질이 존재할 수 있다.

특히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인 조리흙에는 초미세먼지와 여러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다. 조리흙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도 보고되었다. 따라서 실내 공기 질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폐암뿐 아니라 다양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어떻게 환기해야 할까?

실내 공기 질 관리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적절한 환기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는 이유로 하루 종일 창문을 닫아두는 것이 반드시 답은 아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은 날이라도 조리, 청소, 흡연, 난방기구 사용 등으로 인해 실내 공기가 오히려 더 오염됐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루에 여러 차례 짧게 환기해 실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조리할 때에는 배기형 레인지후드를 사용하고, 조리가 끝난 뒤에도 10~20분 환기하는 것이 좋다. 실외 미세먼지 농도가 비교적 낮은 시간대를 확인해 환기한다면 더욱 효과적이다.

공기청정기만으로 실내 공기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까?

공기청정기는 실내 공기 질 관리에 도움이 되지만 환기를 대신할 수는 없다. HEPA(HEPA) 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는 초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질소산화물(NO₂)이나 이산화탄소(CO₂),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같은 기체 형태의 오염물질은 충분히 제거하지 못한다. 또한 실내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도 없다.

따라서 공기청정기는 환기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 이해해야 한다. 먼저 조리나 흡연 등 오염물질의 발생 원인을 줄이고, 환기를 통해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배출한 뒤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때는 실내 면적에 맞는 용량의 제품을 선택하고 필터의 교체 및 청소 주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폐암은 흡연만이 원인일까?

흡연은 폐암에 가장 치명적인 위험 인자로, 폐암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폐암은 흡연만으로 설명되는 질환은 아니다. 간접흡연, 라돈, 대기오염, 직업성 분진과 석면, 디젤 배기가스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일부 폐암은 유전적 요인이나 만성 폐질환과도 관련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비흡연 여성의 폐선암 발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흡연 여부만으로 폐암 위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지속되는 기침, 객혈, 원인 모를 체중 감소,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다면 흡연력이 없더라도 전문의의 진료를 꼭 받아보자.

건강한 삶을 위한 폐암 예방법

폐암은 여러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생활습관과 주변 환경을 개선하면 폐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연이다. 금연은 언제 시작하더라도 그 시점부터 폐암 위험을 감소시키며, 간접흡연을 줄여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다.

실내 공기 질 관리 역시 중요하다. 공기청정기는 환기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업적으로 분진이나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폐암은 예방과 함께 조기 발견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CT를 이용한 국가 폐암 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기회를 높일 수 있다.

폐암 예방은 거창한 실천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 조리할 때 후드를 켜고 환기하는 것과 같은 작은 생활습관이 우리의 폐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다.

“고난도 코 성형 노하우 배울 수 있어서 기뻐요”

인도에서 온
딥티 사티산 전문의



저는 인도 암리타 병원(Amrta Hospital) 소속 이비인후과 전문의입니다. 전문의 취득 후 7년간 코 성형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 해외 연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아산병원을 알게 되었어요. 미국 뉴스위크 세계 최고 병원 평가에서도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고 진료뿐 아니라 연구개발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수받고 싶은 1순위 병원에서 보내는 일상이 꿈만 같아요!

인도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고난도 케이스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 성형 분야의 권위자인 이비인후과 장용주 교수님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고난도 코 성형 수술 케이스들을 참관하며 교수님의 세계적인 명성을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일체형 비익연 이식술’ 케이스입니다. 코끝과 콧볼의 연결 부위 악화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장 교수님이 직접 개발하신 수술법이에요. 논문으로만 접했던 수술 노하우를 가까이에서 직접 볼 수 있어 무척 기뻐합니다.



#장용주 교수님, 수술실 의료진, 그리고 해외의학자들과 함께
(왼쪽 첫 번째가 딥티 사티산 전문의)

좋은 동료들도 많이 만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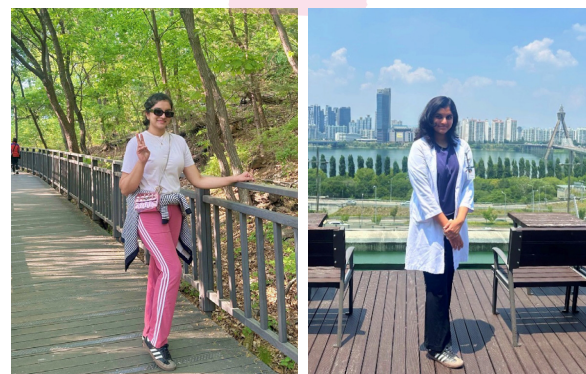
한국 생활의 또 다른 즐거움은 바로 동료들입니다. 과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에도 꾸준히 참석하며 전임의, 전공의 선생님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용주 교수님과 동료들과 함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포스터 발표도 했어요! 최신지견을 익히는 동시에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문화의 차이가 크고 한국어도 서툴지만 한국에서 만난 모든 동료들의 친절함과 따뜻한 덕분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기념촬영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딥티 사티산 전문의)

한국의 자연을 즐기는 시간이 참 소중한데요.

한국에 처음 도착한 게 3월 말이었는데 흐드러지게 핀 봄꽃이 참 좋았어요. 성내천 독길을 따라 만개한 벚꽃과 노란색 개나리를 보며 서울아산병원에서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최근에는 용마산 자락길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해가 넘어가는 초저녁부터 걷기 시작하면 멋진 석양과 화려한 서울 야경까지 감상할 수 있죠. 멀리 가지 않더라도 나무가 울창한 중앙 공원, 탁 트인 한강 전망을 즐길 수 있는 신관 7층 옥외정원도 제가 참 좋아하는 곳입니다! 남은 연수 기간에 또 어떤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나게 될지 기대됩니다.



#용마산 둘레길(왼쪽), 신관 7층 옥외정원(오른쪽)에서 인증샷

한국에서 배우고 익힌 노하우를
국외 동료들에게 잘 전하겠습니다.

3월 말부터 시작한 연수가 9월이면 마무리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익힐 수 있었습니다. 연수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에서 배운 것을 동료들에게 잘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장용주 교수님께 배우고 싶어 하는 열정적인 의사들이 인도에도 많거든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교수님을 인도로 초청해 강의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웃음). 아무쪼록 남은 기간 더욱 밀도 있게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용주 교수님, 감사합니다!

환자의 목소리 너머를 듣다



응급간호팀 조성은 과장

나는 응급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Acute Care Nurse)다. 중증외상 환자와 외과 환자의 초진을 지원하고, 급성 복통 환자가 신속하게 수술적 치료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작년 여름, 3kg 아령이 복부로 떨어진 뒤 통증이 지속돼 119로 이송된 젊은 여성 환자를 만났다. 보호자 없이 홀로 복부를 감싼 채 통증을 참고 있던 환자의 배꼽과 흉부 주변에는 여러 개의 멍이 보였다. 환자는 운동을 과격하게 한 데다가 자신이 요리사라 여기저기 부딪히는 일이 많다고 했다. 나는 혈액검사와 CT검사를 안내했고, 곧 CT에서 복강 내 공기가 확인됐다.

외과 협진이 의뢰돼 다시 찾아간 환자 곁에는 또래로 보이는 여성이 함께 있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했다.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환자는 대화를 피하려는 듯했다. 그사이 복통은 더욱 심해졌고 좌상복부와 심와부 압통에 더해 반발통과 복부 강직도 새롭게 나타났다. 전담교수님은 십이지장 천공으로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술 동의를 위해 보호자와의 관계를 묻자 환자는 “친구”라고 답했다. 가족에게 연락이 필요하다는 말에 환자는 짧게 “없어요”라고 말했다. 함께 있던 친구의 도움을 받아 동생과 연락이 닿았다. 부모님은 두 분 모두 돌아가셨고 언니와도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지만 바로 병원으로 오겠다고 했다. 환자는 직접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뒤 수술실로 이동했다. 그 사이 친구는 사라지고 없었다. 잠시 후 전담교수님으로부터 환자의 몸 여러 부위에서 발생 시기가 다른 멍과 외상 흔적이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 순간 오늘 본 모든 장면들이 하나의 그림처럼 연결됐다. 다시 동생에게

연락했고, 환자가 동거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받아왔으며 함께 왔던 친구가 바로 그 가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즉시 ‘취약환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고 전담교수님과 상의해 신고를 결정했다. 동생의 동의를 받아 경찰에 신고하고 중환자실에도 상황을 공유해 가해자의 면회를 제한했다. 근무를 마칠 무렵 병원에 도착한 동생에게 경과를 설명하자, 동생은 “부모님도 안 계신데 언니가 그런 일을 겪고 있었다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눈물을 보였다.

다음 날 로비에서 다시 만난 동생은 수술을 잘 마쳤고 신고를 도와줘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지금은 치료와 회복이 먼저이니 천천히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며 사회복지팀을 비롯한 병원의 여러 지원체계도 함께 안내했다.

며칠 동안 로비에서 마주치던 동생은 어느 순간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환자가 회복돼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고 있으리라는 안도감과 제대로 인사를 전하지 못한 아쉬움이 오래 남았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종종 ‘축이라고 표현하는 순간들이 있다. 돌아보면 그것은 막연한 직감이라기보다 수많은 경험 속에서 환자의 말과 표정, 보호자와의 관계, 행동의 작은 변화를 종합해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임상적 감수성에 가깝다. 이번 일을 통해 나는 그 감수성을 조금 더 믿고, 더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오늘도 나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뿐 아니라 말하지 못하는 위험까지 먼저 알아차릴 수 있도록, 더 넓은 시야와 따뜻한 관심을 가진 간호사가 되기 위해 응급실에서 뛰고 있다.

내과간호1팀 이한동 사원입니다

서울아산병원에 입사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나요? 우선 모든 간호학부생이 꿈꾸는 전국 최고 병원이잖아요. 마침 어머니께서 서울아산병원 진료를 보고 계셔서 다른 병원보다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93병동은 모두 업무도 척척이고 천사같은 성격이라 100점 만점에 150점인 곳이에요. 예전에 내과 최고 병동 상패를 3년 연속 수상했더라고요. 이런 곳에 배정돼서 행복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일과 가장 어려운 일을 꼽는다면요? 가장 좋아하는 일은 퇴원 간호, 가장 어려운 일은 응급상황 대처입니다. 환자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을 하게 되면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담당 환자가 줄면 잠시 한숨 돌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런데 출혈, 의식저하 등 소화기병동의 흔한 응급상황에선 아직 다른 선생님들처럼 능숙한 대처가 어려워요. 항상 본인 일처럼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저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입사 후 8개월 정도는 다 제쳐두고 당일 업무 복습만 했던 기억이 나네요.

1년간 일하면서 발견한 나만의 강점이 있나요? 뭐든 이틀이면 까먹습니다. 칭찬을 받아도 얼른 초심으로 돌아가고 실수한 일도 마음에 오래 담아두지 않습니다. 물론 실수한 것들은 꼭 복기하지만요. 단점도 분명합니다. 타인의 평판에 예민해 눈치를 많이 보고 이 때문에 소극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필요 이상으로 긴장하는 것 같아요. 병동에서 스스럼없이 지내며 저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작년 송년회 때 복면가왕 이벤트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저의 간호 목표는 실수 없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매일을 보내는 거예요. 병원을 떠나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을 목표일 것 같아요.”

신입 간호사로 일에 대한 자부심은 언제 드나요? 출근길에 병원 외관을 볼 때마다 자부심이 듭니다. 여전히 최고 병원에 출근한다는 뿌듯함을 느끼면서요. 다시 들어오기 힘든 곳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이전에 도움이 필요했던 간호술기들을 스스로 하나씩 해낼 때 자부심을 느껴요. 그래도 아직 리더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병아리인데, “한동이 덕에 갈퇴한다”라는 말이 가장 달콤하게 들립니다.

바쁜 하루를 끝내면 어떻게 나를 충전하나요? 깜빡하고 물을 안 가져온 날, 하필이면 물을 가지러 갈 틈도 없었어요. 퇴근 후 마트에서 커피를 사서 원샷하면서 그야말로 짜릿한 대확행을 느꼈습니다. 평소엔 직원 릴렉스를 2회 연속으로 신청해 1시간 동안 마사지를 받으며 뭉친 몸을 풀고 퇴근 버스에 쓰러져 집에 갈 때 소확행을 느낍니다.

환자 치유의 여정이라는 거대한 법칙 속 ‘원자’로서



암병원간호2팀 신유나 사원

신규 간호사로 첫발을 내디뎠을 때, 설렘만큼이나 큰 책임감이 밀려왔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선배님들을 보며 병동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열정과 동시에 빨리 제 몫을 해내야 한다는 조바심을 느꼈다. 업무 적응에 대해 고민하던 그때, 우연히 읽게 된 이 책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던 조바심을 지우고 나 역시 우리 병동의 소중한 ‘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소설 『라플라스의 마녀』는 모든 물리 현상을 파악해 미래를 예측하는 ‘라플라스의 악마’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비범한 능력을 가진 주인공 마도카, 그녀를 경호하는 다케오, 황화수소 중독 사건을 조사하는 아오에 교수가 하나의 사건으로 얹히며 이야기가 전개된다. 연쇄 의문사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를 과학적 근거와 함께 풀어내 팽팽한 긴장감을 선사한다. 동시에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깊은 울림을 준다.

그중에도 경호원 다케오의 다짐이 마음속 초심을 자극했다.

“경호라는 단어에 가슴이 뛰었다. 내 한 몸을 던져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낸다는 것에서 사명감과 정의감이 강한 자극을 받았다.”

내가 처음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순간과 정확히 맞닿아 있었다. 아픈 이들의 가장 취약한 순간을 함께하며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겠다는 다짐,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던 기본 좋은 책임감이 다케오의 말을 통해 다시금 살아났다.

더불어 인간 개개인을 원자에 비유하며 평범한 존재들의 집합이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큰 흐름을 만들어낸다고 말하는 구절은 병동 안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찾던 나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 세상은 몇몇 천재들이나 당신 같은 인간들로만 움직여지는 게 아니야. (중략) 인간은 원자야. 하나 하나는 범용하고 무자각적으로 살아갈 뿐이라 해도 그것이 집합체가 되었을 때, 극적인 물리

법칙을 실현해 내는 거라고. 이 세상에 존재 의의가 없는 개체 따위는 없어. 단 한 개도.’

이 구절을 읽으며 매일 출근하는 병동의 풍경이 떠올랐다. 병원이라는 조직은 결코 몇몇 사람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의료기사, 그리고 행정과 미화를 담당하는 이들과. 수많은 구성원이 저마다 하나의 원자가 되어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병원은 제기능을 다하게 된다. 그리고 그 원자들이 하나의 집합체가 되었을 때, 비로소 환자의 치유와 회복이라는 물리 법칙을 실현해 낸다.

책을 읽고 나서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지 않기로 했다. 나 역시 간호부의, 그리고 내가 속한 75병동의 하나의 원자이기 때문이다. 비록 지금은 작은 조각일지라도 매 순간 보태는 노력과 의미 있는 실천이 모여 결국 환자를 살리는 흐름을 만든다고 믿는다. 다시금 느끼게 된 책임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환자의 곁을 지키며 이 세상을 구성하는 중요한 원자로서 하루하루 단단하게 성장해 나가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

‘의미 없는 노력이란 이 세상에 없다. 이것 또한 원자다. 이 세상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것이다’라는 말처럼 말이다.



라플라스의 마녀

저 자: 히가시노 게이고
옮긴이: 양운옥
출판사: 현대문학
페이지: 524쪽
발행일: 2016. 01. 11

※ ‘컬처 & 라이프’는 직원들이 감상한 작품과 후기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영화, 뮤지컬, 책 등을 통해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온전한 나만의 심포



내과간호1팀 신미자 사원



피아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나이트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다음 근무를 위해 잠을 청해야 하지만, 눈만 감은 채 누워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헨델의 <파사칼리아>를 듣게 됐고 마음 깊은 곳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후 지브리 음악과 리처드 클레이더만의 연주를 들으며 ‘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 손으로 직접 연주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피아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피아노의 매력과 긍정적 영향은

피아노를 연주할 때면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오롯이 나만의 평화 속에 머물게 됩니다. 업무에 지쳐 심이 필요할 때, 맑고 투명한 건반 소리에 머릿속이 정리되고 마음도 위로받습니다. 직접 연주한 곡을 녹음해 두었다가 강가를 자전거로 달리며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내가 연주한 음악을 들던 순간의 감동과 뿌듯함은 지금도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건반을 누르며 스트레스를 비워내면 환자분들을 대할 때도 따뜻하고 밝은 에너지를 전할 수 있는 활력이 생깁니다.

최근 연주하는 곡과 앞으로의 계획은

요즘은 최성수의 <해후>와 <Whisky on the Rock>, 정훈희의 <안개> 등을 즐겁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력을 더 키워 여행을 떠날 때 휴대용 피아노를 챙겨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연주하는 작은 낭만도 꼭 이루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오래 품어온 꿈이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피아노를 가르쳐 드리는 봉사활동입니다. 평생 ‘피아노를 한 번 배워보고 싶다’는 마음을 간직해 온 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곁에서 돕고 싶습니다.

피아노 입문자들에게

처음부터 교재에 얽매이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곡 하나를 먼저 정해보세요. 흥미를 유지하며 꾸준히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 역시 연주하고 싶은 곡의 악보와 영상을 내려받아 손 모양을 하나씩 따라 하며 연습했습니다. 매일 바쁜 하루를 보내는 동료 선생님들! 퇴근 후 내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줄 아지트를 만들어보세요. 나만의 공간에서 좋아하는 한 곡을 완성해 가는 과정은 지친 일상을 위로하고 스스로에게 행복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 ‘나의 취미생활’은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기는 직원들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의료진을 향한 응원

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경과가 좋지 않아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해 온 환자입니다. 얼마 전 외래 진료를 기다리던 중, 예약 안내를 하던 오여진 간호사님에게 한 보호자가 큰소리로 항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료를 마친 환자에게 다음 예약을 안내하는 동시에 대기 중인 환자도 계속 호출해야 하는 바쁜 상황이었지만, 오 간호사님은 목소리 한 번 높이지 않고 끝까지 차분하고 공손하게 응대했습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는 몸과 마음이 지쳐 자신도 모르게 예민해지곤 합니다. 그런 환자를 응대하는 순간에도 감정을 다스리며 맡은 일을 성실히 해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의료진 역시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인 만큼 서로를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이 오 간호사님께 작은 위로와 응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자를 배려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환자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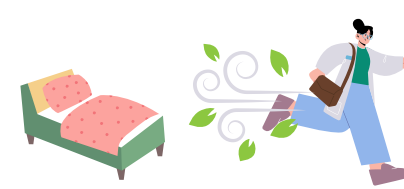


이 그림은 Gemini를 통해 생성된 AI 이미지입니다.

“ 외래에서 근무하며 많은 환자분들을 만납니다. 바쁜 진료 일정을 따라가며 예약과 검사 안내를 드리다 보면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되는 날도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도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의 말씀까지 전해주셔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간호사는 환자를 돕지만, 때로는 환자분들이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도 합니다.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을 오래 간직하며 앞으로도 환자분들 곁에서 친절하고 든든한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

- 심장병원간호팀 오여진 사원

※ '감사우체통'에서는 고객이 보내온 고마운 마음과 직원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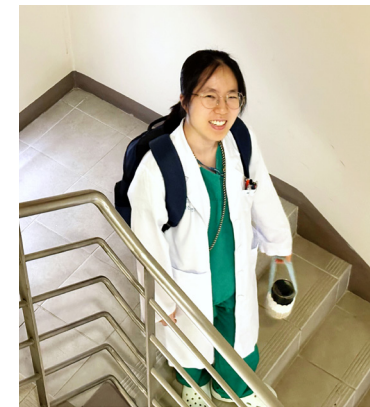
매일 출근 기행

교육수련실 김유진 인턴



매달 신입사원이 되는 자, 바로 의사 인턴이다. 여러 과를 번갈아 가면서 순환근무를 하기에 익숙해질 만하면 새 업무가 주어지고 조금 친해지면 떠나고. 그렇게 1년에 12번 신입 생활이 반복된다. 전공대를 하면 첫 일주일엔 긴장이 바짝 든다. 알람보다 일찍 일어나고 식사시간이 보장될지 몰라 아침밥도 꼭 챙겨 먹는다. 가방 안에는 보조배터리, 간식, 물통, 칫솔, 핸드크림 등을 두둑이 채워 넣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초초해져 기숙사 계단을 후다닥 내려가 조기 출근을 한다.

2주 차가 되면 '할 만한데?' 근거 없는 자신감이 피어난다. 보조배터리는 무거우니까 빼자. 알람은 5분만 늦춰도 아무 일 안 일어날 거야. 점심시간은 보장되니 간식도 필요 없고. 그렇게 가벼운 가방과 함께 아슬아슬하게 정시 출근을 하면 꼭 무엇인가 허전하다. "아, 내 물통!" 3주 차가 되면 슬슬 아침밥을 거르기 시작한다. 출근하고 일을 좀 털



면 비는 20분 사이에 먹여야지 하면서 알람 시간을 미루는 것이다. 자주 보는 환자들과는 많이 친해져서 시시콜콜 수다를 떨고 다음 주에 떠난다면 서 아쉬워한다.

마지막 주차는 다음 턱에 대한 예기불안이 생긴다. 인계장을 최대한 늦게 펼쳐보고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숨 쉬고. 사실 그 달의 일은 익숙해져 편하지만 마음이 불안하다. 잠을 뒤척이다 피곤한 얼굴로 출근한 모습을 본 어느 친절환 보호자님 왈, "아휴, 어제 당직 서셨나 보다. 이거라도 마시면서 일해요." 방금 출근했지만... 예, 뭐, 감사합니다!

그렇게 불안과 긴장, 휘몰아치는 업무들로 정신없이 지나다 보면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훌 지나간다. 벌써 인턴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니 행복하기도 하고 다가올 미래가 두렵기도 하다. 하지만 걱정을 길게 할 시간이 없는 인턴이라, 오늘도 후다닥 계단을 타러 간다. "넵. 금방 올라갑니다!"

독자의 소리

뉴스매거진에 대한 감상, 동료에 대한 칭찬, 신입직원 소개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를 독자엽서에 담아 주세요.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 중 선정된 직원에게는 달마이어 이용권을 드립니다.



방사선종양팀 최예진 주임

'AMC 루키' 코너 속 신규 선생님들을 보면 입사 1, 2년 차 때의 제 모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직종의 신규 선생님들의 이야기 많이 소개해주세요!

수술간호팀 김미경 대리

가장 좋았던 코너는 'AMC IN(人)sight - 최선의 결과 위한 집요한 고민'이었습니다.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해 맞춤형 치료를 시행하는 간담도체외과 홍광표 교수님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외과간호팀 김유진 사원

'사람&이야기 - 기내 닥터콜, 망설임을 이긴 한 걸음'을 읽으며 병원 안에서도, 병원 밖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안과 이훈 교수님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두려움을 뛰어넘는 책임의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심장검사팀 한윤아 선임기능

'감사우체통' 코너를 읽을 때마다 의료진에 고마움을 표현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표현들이 의료진이 본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외과간호팀 임영진 선임기능

귀찮다는 이유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했는데 '헬스에디터 - 자외선과 점, 그리고 피부암'을 읽으며 아차 싶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꼼꼼하게 관리해야겠습니다.